FX Market Daily

2026-01-27

전일동향

전일대비 25.20원 하락한 1,440.6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5.20원 하락한 1,440.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9.70원 하락한 1,446.10원에 개장했다. 환율 하락폭은 정부의 고강도 환율 안정화 조치가 있었던 지난달 24일(33.80원) 이후 최대로, 1,440.6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공조 조짐에 따른 엔화 초강세가 환율 낙폭을 확대한 것이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2.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4.86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6.10	1449.90	1433.30	1440.60	1442.80
엔화	940.65	950.36	931.15	934.86	-
유로화	1732.72	1744.15	1697.77	1711.73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5	-3.88	-9.28	-17.77
결제환율(수입)	-0.16	-3	-7.38	-14.3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관세 리스크에...1,44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6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40.60) 대비 8.05원 상승한 1,447.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관세 리스크에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당초 미국과 일본 당국의 공동 개입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 전환에 더해, 캐나다 관세 위협 등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를 15%에서 25%까지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커졌다. 해당 발표는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달러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되는 경우 환율 상승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공조 개입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 압력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화 강세가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연방정부 셧다운 재개 가능성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42.00 ~ 1454.0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588.13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05원↑
- ■ 美 다우지수 : 49412.4, +313.69p(+0.64%)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4.49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394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